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분노(Anger)도 생명의 힘이다

인간의 치유와 성장, 성숙은 ‘누군가와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깊은 접촉과 친밀감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깊이 연결되어있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관계의 속성은 서로 공평한 관계를 맺을 때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공평하지 않은 관계가 이어지면 서서히 오해, 분노와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 인간은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공격성 에너지입니다. 이와 같은 공격성에 대해서 “생존을 위한 생명의 본능 에너지(surviving energy)와 생명의 움직임(The movement of life)”이라고 도널드 위니컷은 말합니다. 공격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성 에너지의 특징은 <운동, 놀이 등>으로 표현되며, 자기 획득 에너지의 특징은 <자기보호, 자기권리, 자기 실현, 진취성, 자기주장>으로 그리고 창조성(creativity) 에너지와 파괴성(destructibility) 에너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공격성 안에서 전인적 존재로 체계를 밝아 나가는 유기적 존재인 인간은 본능의 에너지를 사랑(애정)으로 연결되어 일치를 추구하여 나아가려는 관계를 맺어가고자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1. 공격적 자기표현(Aggressive) : ‘나만 행복하면 너는 불행해도 된다’ 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반찬이 이게 뭐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너는 이것밖에 몰라” 등과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싸움으로 변질 수가 있습니다. 대개 충동적입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루카 15, 12-13)

2. 소극적(비주장적) 자기표현(passivity) :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했을 때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존중되지 않은 것 같아 불만을 쌓아가게 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루카 15, 28-30)

3. 자기 주장적 의사 표현 :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느낌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은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루카 15,31-32)

다양한 표현 방식 중에 자신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권리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교도소를 새남터라 부르자

박도식 도미니코 신부

교도소(矯導所)라고 하면 모든 이가 입에도 담기 싫어하고 멀리 피해 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이가 외면하는 교도소이지만, 그곳에 머무는 재소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어 바람직한 사회의 역군으로서 그들의 가정에서는 자랑스러운 부모, 형제,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 새 생명을 갖고 새로 태어나는 곳이 아니고 무엇이랴?

불우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출생하여 잘못된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이 없이 살던 인간(人間)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과 커다란 물의를 남기고 영어(圜圖)의 몸이 되어 살면서 잃어버렸던 자신(自身)을 되찾고 새 삶을 시작한다면 비록 부모님에게서 다시 아기로 태어나지는 못해도 그는 분명히 새 생명을 갖고 새로 태어나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새남터라는 단어는 이런 처지에서 더욱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새로 태어나는 자리, 새사람이 되는 곳, 새 생명을 갖는 곳의 뜻이 있다. 그래서 제호를 새남터로 정한 것이다. 예수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 3,3) 하셨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인간양심(人間良心)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황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갇혀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저 멀리 반짝이는 하나의 별빛을 향해서 돌진(突進)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 모두는 거짓된 자기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순수히 자아를 보고 성숙(成熟)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 회개하며 갱신(更新)시키므로 주님의 덕(德)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작심(作心)하고 잊어버림이 아니라 매달, 매주, 매일,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인간(人間)이 되어야 하겠다.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은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 T.머튼

*1976년 10월에 발행한 <빛> 간행물에 실린 박도식 신부의 글입니다.

맞춤법은 현재 사용하는 표기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동굴 속의 빛

김정미 체칠리아_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봉사자

“교도소 봉사를 왜 해?”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받지요. 선뜻 그럴싸한 답을 못 내놓습니다.

“글쎄... 나는 왜 하는 걸까?”

우리 집에서 서울남부교도소까지 도보로 11분 걸립니다. 가까우니 본당 신부님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공소 미사 반주 좀 하라십니다. 저에게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달란트는 반주하는 달란트라 “예! 가겠습니다.”라고 시작한 봉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류동 성당 공소 미사로 시작하여 교정사목 미사에도 참여하게 되고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미사에도 봉사할 기회가 왔습니다. 매달 교도소로 발길이 향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제 일상에 교도소 봉사 이야기가 끊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나 오늘 교도소 봉사가야 해.” 하며 포기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이상하게도 이 봉사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봉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수용자들을 모아 성가대를 시작할 기회를 주셨고 저희 본당에 교정사목회 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 성가를 연습할 때 눈을 감고 회개의 시간을 갖는 수용자들, 연습 도중 면회 접견으로 나가셔도 다시 연습실로 부랴부랴 오시는 수용자들이 너무 고맙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수용자가 저에게 “진심 어려운 처지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도 꼭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사랑 배달 다니신느라 수고하는 천사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봉사를 하니 하느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들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에 잔잔한 감동들이 되려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의 꾸준함이 저에게 큰 감동들이며 힘이 됩니다. 코로나로 봉사가 멈춘 작년부터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우리 형제님들 잘들 계시나 다들 출소하셨을 텐데...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이 또한 모두 지나가겠지요.

“교도소 봉사를 왜 해?”

아무리 어두운 동굴 속이라도 빛 하나가 환히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듯이 저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 교도소 봉사를 합니다.



파라오의 딸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모세가 ‘모세’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모세 이름대로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 낼’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큰 역할을 한 이는 무엇보다 파라오 딸입니다. 파라오의 딸은 강가 갈대 사이 왕골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를 자기 아들로 삼고,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탈출 2,10 참조).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 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 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샀을 주겠네.” (탈출 2,5-6; 9)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는 것은 극적입니다. 목욕하러 강으로 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을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상자를 가까이 다가가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긴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합니다. 아기를 위해 유모를 구하고 샀까지 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기릅니다.

이 일화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의 비유로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초추점이 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여관 주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면서 행동을 취합니다(루카 10,33-35 참조).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제나 레위인처럼, 반대쪽으로 피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쫓쫓쫓 하며,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파라오의 딸은 상대방이 온전히 제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한 방법을 신경 써서 도와줍니다. 파라오의 딸은 유모와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과 연대해서 돕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와주는 대상에 대해 우리는 다시금 반성해보아야겠습니다. 단순히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고, 동감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에게 초주검이 된 유다인은 평소에 서로 말을 건네지도 않는 적대관계였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전혀 낯선 히브리인 아기는 아버지 파라오가 죽이라고 한 그 대상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집안 가장의 말썽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국법을 어긴 것이고, 또한 주변 지인, 동료와 민족들에게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대상을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니까, 저 사람은 서울 교구가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저 사람은 이러저러한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전과가 어떠하니까, 저 사람은 피부색이 나와 다르고, 냄새가 나며, 나와 국적이 다르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복지 현장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종교가 품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분들은 교정시설에 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받고 있는 수용자들, 또한 출소자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수용자 가족과 출소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은 파라오의 딸, 착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그러한 사랑을 모아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웃을 수 있는 일 (I)

허OO / 2021년 창업 대출자

▶ 창업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직장이라는 건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10시가 다 되도록 열심히 일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일한 만큼의 대가는 고스란히 회사가 가지고 가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 창업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바로 창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 홈케어 서비스라는 일을 알아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었습니다. 기술과 고객 응대 마인드 등 창업할 수 있을지를 직접 현장에서 일해보고 배워가면서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후 홈케어 업체에서 2년여간 생활을 하면서 창업이라는 부분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일하면서 창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직장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었고 고객님과 시간 조율을 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홈케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의 업종을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홈케어 서비스는 이미 많은 여러 나라에서 유망 받는 직종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집안 위생과 건강에 좀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편의를 위해 가전제품(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주방 후드, 가습기, 환풍기 등)은 필수가 되어있고 가전제품의 성능과 효과는 나날이 좋아지며, 집마다 가전제품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용자인 고객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성능과 건강위생에 제품분해청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7개월 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어린이집, 학원의 등 하원을 제가 해야 하다 보니 시간의 제약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업은 고객과 시간 조율이 가능하여 그러

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일한 만큼 더욱 보람도 있었고 주 고객층이 아이가 있는 집도 많다 보니 생활하는 집안의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도 저에게는 많이 되어 정말 내 집처럼 더욱 꼼꼼히 일하게 되었고 고객들도 그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창업에 성공하려면 사업 운영능력이 중요한데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업종에 취직하여 2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홈케어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현장에 따라가서 배우고 잘 모르는 사업운영 영역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면서 현재도 같이 협업 중입니다. 또한, '기쁨과희망은행'을 만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사업운영의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영업을 하시면서 나만의 장기나 비법이 있으십니까?

저는 영업의 특별한 장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고객님을 만나고 고객님이 만족해하고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명함을 전달해 드리고 오면 고객님으로의 소개가 또 소개로 이어지거든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일해주더라도 찻찻하지 않고 기본 좋게 우리 집처럼 청소해 주는 일이 저에게는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창업과 관련하여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출소 후 결혼하고 집 장만하고 창업을 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아간다면 오늘보다 정말 현재보다 내일은 좀 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걸 느끼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수용자 가족 이야기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

먼저 오늘 보내주신 '부활절 떡'은 매우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 같은 방 언니가 "부활절인데 달걀 안주나" 하길래, "불교 신자가 왜 부활절 달걀을 기다려?"라고 했더니 멧쩍은 듯이 한참 웃더군요.

아시겠지만 지난 3월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어렵고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괴로운 시간 끝에 받은 이 소중한 선물은 저희를 모처럼 웃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백설기 말고 다른 떡을 먹고 싶다고도 했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듯 '절편, 바람떡'을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모두 좋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쥘쥘했습니다.

저희 방은 현재 7명으로 불교 2명, 개신교 3명, 무교 1명입니다.

저만 천주교인데 천주교에서 나누어 주는 떡을 받으니 제가 나누어 준 것처럼 얼마나 뿌듯한지요.

아무튼, 저희는 오늘 주신 선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을 시작하는 첫날의 햇살은 무척이나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 햇살처럼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평생 쫓기듯이 살아온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려놓는 일이 왜 이리도 힘이 드는지, 갈 길이 먼 듯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주를 향해 걸어가며 주님의 평화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부님들과 봉사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신부님과 봉사자님들을 봉헌하면서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2021. 04. 01

프란치스카 드림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자매님이 주님 부활 대축일 떡을 받고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님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자매님께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6월까지**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주님 부활 대축일 기념 각 교정시설 떡 지원**



4월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각 교정시설의 모든 수용자에게 따뜻한 떡을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미사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떡 전달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3/18~4/15)**

2021년 3월~4월에는 구희숙 힐데가르데, 김수진, 김안중 골롬바, 김정자 젤뚜루다, 김지홍 리디아, 박정자 루시아, 손연경 세레나, 신미자, 신희자 베로니카, 안정순 마틸다, 이택주 다니엘, 임정순 안나, 정영자 세레나, 최완규 사도요한, 허명복 로사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복자 엘리사벳, 배자경, 조성철, 최지영 어거스틴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린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